

	보 도 자 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2. 20.(수) 총 4매(본문 3, 붙임 1)	
담당 부서 항공안전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장만희, 사무관 최진호, 주무관 조계웅 • ☎ (044) 201-4248, 4254	
보 도 일 시		2017년 12월 2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0.(수) 16:00 이후 보도 가능	

“청년들의 하늘색 꿈을 응원합니다!”

- 항공조종사, 훈련생 과정 잘 마치면 취업 보장 -

항공사 지원·훈련비용 대출·장학금 지급...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

- ☞ 先선발·後교육으로 고용불안 해소 및 훈련비용 대출 용이
- ☞ 장학금 지원·훈련비용 절감 등으로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
- ☞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적극적 감독으로 훈련기관 안전강화

- 앞으로는 항공사의 훈련생으로 선발되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조종사로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, 훈련과정의 비용을 항공사가 대출 보증 등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훈련생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.
- 뿐만 아니라, 훈련비용 절감 및 장학재단 설립 등을 통해 저소득층·서민층도 얼마든지 조종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, 훈련기관의 안전관리도 강화되어 미래의 조종인력들이 안심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

▶ 현재까지는 조종사로 취업 시까지 개인이 훈련비용(약 1.5억원)을 전액 부담해야 하나, 앞으로는 항공사의 지원(약 2천만원 지급 또는 대출 보증) 및 장학재단의 대출(1억여원)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그간 제기된 조종인력 부족, 비행낭인 발생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항공사·훈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「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」을 마련하였다.

□ 이번 개선방안은 ①취업 보장형 훈련체계(先 선발 後 교육) 도입, ②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, ③훈련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(취업 보장형 훈련체계 도입*) 항공사가 훈련생을 먼저 선발하여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 이수 및 자격 취득 후 채용하도록 하고, 훈련비용을 항공사가 일부(약 2천만원) 부담하거나 대출 보증 등의 지원을 통해 훈련생 개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.

* 9개 항공사 중 화물운송 전용 항공사를 제외한 8개 항공사가 도입을 결정, 항공사-훈련기관 간 협약 체결('17. 12. 20.) 및 본격 추진('18년~)

- 또한, 훈련과정과 학점은행제를 연계해 훈련과정 이수를 통해 학위 취득이 가능토록 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,

- 항공사가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인센티브*를 제공하는 한편,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사의 종사자 인력 수급·관리에 대한 지도·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.

* 인력 양성·수급에 투자가 우수한 항공사는 슬롯·운수권 배분 시 우대

② (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 등) 「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」을 저소득층 훈련생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,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저소득층·서민층에게 대출(1억여원)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,

- 훈련기 부품 공동구매·공동정비, 훈련기 운영방식 개선 및 해외 훈련인프라 활용* 등을 통해 훈련비용 절감도 추진할 계획이다.

* 국내 지리적 특성상(기상영향 등) 비행가용일수가 부족하고 소음민원이 많은 비행훈련은 해외에서 실시, 훈련기간 단축(10개월 → 4개월)을 통해 비용 절감

③ (훈련기관 안전관리 강화) 조종사를 양성하는 모든 훈련기관에 대해 교관 및 훈련시설·장비를 확보하고 안전관리시스템(SMS) 등을 갖춰 전문교육기관*으로 지정**받도록 하고,

- * (전문교육기관) 교관 및 시설·장비 요건 등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훈련기관으로 정부가 정기·수시 감독(現 총 26개 훈련기관 중 전문교육기관은 9개)
- ** 항공안전법 개정('17. 10. 24. 공포)에 따라 '18년 10월까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의무화

- 조종사 훈련·평가가 모든 훈련기관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기관마다 상이한 **훈련프로그램* 표준화** 및 정부의 관리·감독 강화를 위해 **전문감독인력 충원도** 추진한다.

* (훈련프로그램) 교육 과목·시간, 교관, 훈련시설·장비, 평가방식 등

- 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개선방안은 조종사 부족, 비행낭인 발생 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·훈련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 **사회적인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**”면서,
- “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조종사의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**항공사·훈련기관 등과 지속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**”고 강조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최진호 사무관(☎ 044-201-424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

교육과정	현행	개선
<p> <3년간 연평균 자격취득(915명)> * 국내 : 517명 (전문: 250, 대학: 9, 사용사업: 162, 軍 96) * 해외 : 397명 </p> <p> 자가용 과정 (70H) 울진, 전문기관(7), 대학(7), 사용사업체(10), 군 </p> <p> 사업용 과정 (+130H) 울진, 전문기관(7), 대학(7), 사용사업체(10), 군 </p> <p> 비행경력 축적 (+50~100H) </p> <p> 교관 과정 (+800H) 및 JET 과정 </p> <p> JET 과정 </p> <p> 대한항공 · 진에어 -요구조건 : 비행시간 1,000시간 -기간 : 약 3년 반 -비용 : 약 1.5억 ① 훈련비 1.1억 ② 체제비 0.4억 </p> <p> 아시아나 · 저비용 -요구조건 : 비행시간 250시간 -기간 : 약 2년 -훈련 : 약 1.4억 ① 훈련비 1.1억 ② 체제비 0.3억 </p>	<p>대학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격증 취득 후 항공사 입사지원에 따라 채용 불확실하고 교육비가 타자격증에 고비용이 요구됨 ■ 비행일수 부족 등 지리적인 여건의 한계에 따라 외국에 비해 교육이장기간 소요 ■ 교육비가 1억원 수준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존재 ■ 항공기 부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, 적기 부품수급 및 원가절감에 한계 <p>위탁 훈련기관</p> <p>부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채용절차 : ①서류전형 → ②필기전형(지식검사) → ③기량평가(SIM CHK) → ④면접전형 → ⑤신체검사 → ⑥최종합격 ■ 기종전환 : B737 등 대형기 및 노선 숙지 훈련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취업보장형 교육제도 (洗선발 後교육)를 도입하여 훈련비 부담을 경감(최소 2천만원 이상)하고 취업보장 ■ 비행일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가용 과정을 해외 인프라를 활용하여 훈련기간 약 2년 중 약 6개월(25%) 단축 ■ 항공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저소득층 및 서민층 등 지원 ■ 부품공동구매 및 운영절차 개선을 통해 훈련기관의 교육비 1.5억원 중 약 500만원(5%) 절감
<p>항공사 취업 전제조건 : 고졸(만18세) 이상, 항공신체검사 1등급, 군필, 영어능력(토익 800이상 수준)</p>		